

세계 6대 도시에 나타난 현대패션 현상 비교 - 파리 · 런던 · 밀라노 · 뉴욕 · 도쿄 · 서울의 컬렉션을 중심으로 -

박길순 · 김서연*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20세기 중반 이후 등장한 세계화의 담론은 전 세계가 하나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며 유사한 여건과 문화 속에서 동일화되어간다는 데 초점을 두어 왔고, 이러한 사회문화적 시각은 패션현상에도 적용되어 전 세계의 패션현상이 점점 더 동일화되어 간다는 주장들로 이어져왔다. 그러나 패션을 비롯한 문화 현상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유사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다른 문화나 패션현상들과의 혼합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의 문화현상을 동일화 · 지역화 · 혼성화로 보는 1990년대의 세계화론을 현대 패션현상에 적용하여,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파리 · 런던 · 밀라노 · 뉴욕 · 도쿄 · 서울의 6대 도시에서 발표된 컬렉션 작품들간의 세계화 현상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현대 패션의 현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질적 연구로서 문헌적 고찰에 의하며, 연구를 위한 자료는 컬렉션 전문서적과 전문 인터넷 사이트에 실린 6개 도시의 컬렉션 사진과, 패션 전문 잡지에 실린 분석 기사에서 수집하였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뉴미디어의 확대, 동양사상과 일본문화 영향력의 확대 같은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나타난 세계 패션의 동일화 현상으로는 로맨틱시즘과 미니멀리즘의 혼합, 젠스타일과 소프트 아방가르드룩의 등장,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스타일의 융합을 들 수 있다. 또한 스타일에 있어서는 1995년의 글래머룩, 1996년의 밀리터리룩, 1997년의 에스닉룩, 1998년의 소프트 아방가르드룩, 1999년의 다민족적 에스닉룩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색상은 회색을 중심으로 한 무채색이, 소재는 비치는 소재와 광택 소재와 신축성 소재가 6개 도시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다르게 위치할 뿐 아니라 각기 다른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가치관과 취향이 형성된 이들 도시의 패션 현상은 위에서 열거한 동일한 트렌드 안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독특한 형태들로 표현되고 있었다. 즉, 연구 시기의 파리 컬렉션은 불림있고 화려한 스타일이 많이 나타난 반면, 런던의 컬렉션에는 핑크 스타일의 과격하고 그로테스크한 이미지의 패션들이 주를 이루었고, 밀라노의 컬렉션에는 쉬크한 이미지의 정장과 선명한 색상의 배합을 통한 캐주얼이 많이 등장하였으며, 뉴욕 컬렉션에는 실용성과 편안함을 강조한 작품들이 많았다. 또한 도쿄 컬렉션은 기모노를 응용한 평면구성과 스트리트의 큐티룩을 전위적으로 표현한 패션들이 대다수였고, 서울의 SFAA 컬렉션은 여러 가지의 스타일에 한복의 요소를 접목한

작품이 많이 등장하였다.

한편, 연구 기간동안 세계 6대 도시에서 보여진 다민족적 에스닉룩의 유행은 여러 시대·여러 문화의 패션에서 모티브를 가져와 한 자리에 모아놓은 현대 패션의 혼성화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중동 사막지방의 고유복식, 아프리카 여인들의 목걸이, 중국의 전통 화장법과 헤어스타일 등이 한데 어우러지는 것과 같이 세계 여러 나라의 지역적 특성이 함께 혼합되어지는 문화적 현상이 패션에도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1990년대 후반의 세계 6대 도시에 나타난 패션현상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동일한 세계적 트렌드 안에서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각 지역의 특수한 형태는 서로 혼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요컨대, 현대의 패션현상은 지역간에 서로 유사하면서도 각 문화내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한편, 서로 혼합되고 있는 문화의 세계화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